

뉴스 댓글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와 한국 사회의 금기 문화

이정복(대구대)

<차 례>

1. 머리말
 2. 인터넷 욕설과 금기어, 금칙어
 3. 인터넷 욕설의 유형과 사용 실태
 4.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
 5. 맺음말
-

【벼리】 이 연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쓴 금칙어 욕설의 쓰임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2장에서 인터넷 욕설과 금기어, 금칙어의 관련성을 기술하고, 3장에서 인터넷 욕설의 유형과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누리꾼들이 사용한 욕설 금칙어의 쓰임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누리꾼들은 성기/성행위, 장애/질병, 죽음, 신분/품성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욕설을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면에서 남성이 여성의 4배 이상 욕설을 많이 썼고,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누리꾼들의 욕설 금칙어 사용을 통하여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과거는 물론 지금도 장애 금기, 하층 계급 및 반인륜적 행위 금기, 성행위 및 근친상간 금기 문화가 특히 강하다고 보았다.

* 주제어 : 네이버, 뉴스 댓글, 욕설, 금기어, 금칙어

1. 머리말

인터넷 공간에서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쉽게 관찰된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뉴스 댓글란 등의 공간을 통해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때로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고, 때로는 특정 인물이나 기관을 공격하기도 한다. 10대나 20대의 젊은 누리꾼들은 욕설을 통해 잘 아는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확인하거나 재미를 얻는 일도 있다. 인터넷에서는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30대 이상의 누리꾼들도 욕설 사용을 적지 않게 한다. 심지어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누리꾼들도 쉽게 욕설을 사용한다. 인터넷 공간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황과 익명성 환경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 공간에서 마주 보고 대화할 때와 달리 사회적 억제가 약한 상황에서 욕설 사용이 더 쉽게 일어나는 것이 한 특징이다.

누리꾼들이 많이 쓰는 욕설에는 ‘개새끼, 개자식, 버러지’와 같이 사람을 동물이나 벌레에 비유하는 표현, ‘병신, 미친놈, 지랄’과 같이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표현, ‘씨발, 씹새끼, 좆같은’ 등의 성 관련 표현, ‘쌍놈, 호로새끼, 쓰레기’와 같은 신분 및 품성을 비하하는 표현, ‘똥져라, 나가죽어, 찢어죽여’ 등 죽음을 강요하는 표현 등이 다양하게 쓰인다. 이런 욕설들은 정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낯선 사람은 물론이고, 보통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쓰기 어려운 말이다. 관계 파탄을 감수하고서 남과 격렬하게 싸울 때에나 쓸 수 있는 표현인 것이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그럼에도 욕설을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마음의 큰 충격을 주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욕설로 쓰이는 대부분의 표현이 그 사회의 금기와 관련되는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쓰는 욕설은 인터넷 금기어인 금칙어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뉴스 댓글의 욕설 쓰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유형과 분포를 살펴보고, 그러한 욕설 사용 실태를 통하여 현대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2장에서 인터넷 욕설과 금기어, 금칙어의 관련성을 기술하고, 3장에서 인터넷 욕설의 유형과 사용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4장에서는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욕설 금칙어의 쓰임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보기로 하겠다.

2. 인터넷 욕설과 금기어, 금칙어

‘욕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품성을 떨어뜨리며, 재앙이나 불행을 꾀도록 빌면서 공격하고 조롱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욕설은 “상대방의 신분, 인성, 행동 성향, 신체 특징, 동작, 성상 등을 비하, 비난함으로써 상대방의 존중의 욕구를 모독하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장경희 2010:414)이다. 또 욕설은 “논리라든가 이성애 매인 언어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분화(噴火)하는, 불 뿜는 언어들”(김열규 1997:10).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미워하게 될 때, 또는 남을 욕되게 하려는 경우에 쓰는” 욕설은 “결국 공격적이거나 증오에 차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일부러 남의 자존심 등을 건드려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화를 유도하는 말”(전병철 2007:193)이다.

한국 사람들은 ‘개새끼’, ‘버러지’라는 말을 씌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동물 차원의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병신’이나 ‘미친놈’ 등 신체, 정신 장애 관련 표현으로 상대방이 ‘결함’ 또는 ‘비정상’ 상태라고 자극하는 동시에 그렇게 되도록 저주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성기를 가리키는 ‘짹’, ‘좃’과 ‘씨팔’, ‘빠구리’ 등의 다양한 파생 표현들은 성과 관련된 사회적 금기를 깨트림으로써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안겨 준다. ‘쌍놈’, ‘창녀’, ‘개쓰레기’ 같은 말은 사람의 품성을 저속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적극 쓰는 욕설이다. ‘자살

해라'나 '짖어죽여' 등 죽음과 관련된 욕설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강한 죽음 공포를 이용하여 겁을 주거나 죽음으로 내몰기 위한 압박 표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욕설의 내용에 대해 전병철(2007:193)은 “그 시대에 가장 천시되고, 무시되고, 기피하는 하찮은 것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욕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상적 쓰임이 제한되는 금기어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사회문화적으로 평소 써서는 안 되는 말로 규정된 금지 표현을 의도적으로 씌으로써 모욕감, 불쾌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며 괴롭히는 욕설 행위에서 가장 선호되는 언어 재료가 바로 금기어인 것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 곧 금기어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금기어가 욕설로 자주 쓰이고 효과 또한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어 욕설 표현의 다수는 바로 금기어에서 온 것이며, 화자들은 금기어를 욕설로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 충격을 주고 마음의 평정심을 깨트리려고 시도한다.¹⁾

그런 점에서 욕설은 완곡어와 대비된다. 완곡어는 “금지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할 때 직접적인 방식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갑남 2017:133)으로 “금지어가 원 형태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는 언중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조향숙 2013:204) 금지어가 가진 뜻을 에둘러 표현하는 말이다. 완곡어는 금기어의 직접적 사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쓰는 대체 표현인 반면 욕설은 금기어를 망설임 없이 노골적,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언어 표현이다.

한국의 누리꾼들은 일상어에서 쓰는 욕설을 인터넷 공간에서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동기에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표현을 바꾸어 쓰는 일이 많다. 네이버, 다음 등의 대규모 대문형(portal) 사이트에서는 ‘미성년자 보호, 품위 있는 언어 사용, 사회 질서 유지, 상업 광고 배제’와 같

1) 김종수(2000:260)은 욕설 자체가 특정한 의사소통 대상이나 상황과 관련하여 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금기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은 여러 가지 목적에서 각종 ‘금칙어’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이정복 2008:274), 누리꾼들은 금칙어를 피해서 욕설을 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식을 바꾸거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낸다. 네이버의 경우 2018년 현재 뉴스 댓글에 약 7만 개의 금칙어를 설정,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약 300개의 표현은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도록 차단하고 있고,²⁾ 나머지는 입력은 할 수 있지만 다른 누리꾼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으로 바꾸어 표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이트에서 정해 둔 금칙어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칙어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금칙어 대응 전략’(이정복 2008:291)을 동원하게 된다. 그 결과 누리꾼들이 쓰는 욕설 또는 금칙어는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그것에 대응해 사이트에서 설정하는 금칙어 수도 늘어나는 악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금칙어는 인터넷 공간의 현대 금기어라고 부른다. 전병철(2007:194)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미성년자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단어들”이 ‘금칙어’라고 정의했다. 이정복(2008:277)에서는 인터넷 금칙어를 “인터넷 통신에서 품위 있는 언어 사용, 청소년 보호, 사회 질서 유지 등의 목적에서 쓰기 또는 찾기를 제한한 언어 표현”으로 정의하고, “인터넷 통신 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21세기 새로운 금기 문화’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복(2008:277-280)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금칙어는 전통적인 금기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금기어는 먼저 형식 면에서 낱말, 어구, 문장, 이야기 등의 여러 가지 크기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반면 금칙어는 일부 구나 문장도 있지만 대부분 낱말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내용 면에서 보면 금기어와 인터넷 금칙어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금칙어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경제적인 문제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용 차이가 나는 것은 금칙어의 설정 배경이나 목적이 금기어보다 더 넓

2) 입력 자체를 금지하는 금칙어로는 ‘좃만한새끼, 개자지놈, 걸레자지, 십창자지놈, 십창보지년, 씹보쥐’ 등이 있다. 대부분 성기나 성행위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다.

기 때문이다. 금기어가 주로 종교적, 윤리적, 심리적 차원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인 반면 금칙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인 차원에서 특정 기관이나 집단이 계획적으로 정한 것이다. 금기어의 사용은 강제성이 비교적 약하고 화자의 의지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 비해 인터넷 금칙어는 강제성이 더 강하고, 금칙어로 일단 설정되면 화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대로의 형식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 언어 공동체에서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언어 표현”(박영준 2004:83)인 금기어는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이므로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간단한 질책에서부터 심하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강한 처벌을 받는 일도 있었다. 금기어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쓰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앞에서 적은 ‘완곡어’ 또는 ‘완곡 표현’이다. 완곡어는 금기어를 직접 말하지 않고도 그 뜻을 예들려 표현할 수 있는 대체 표현이다.³⁾ 완곡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금기어를 말함으로써 받게 되는 위험과 제재를 스스로 피하기 위함인데, 인터넷 금칙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 여러 가지 변이형이 생겨난다. ‘금기어’ 대응 전략의 결과가 ‘완곡어’라면 ‘금칙어’ 대응 전략의 결과는 ‘금칙어의 다양한 변이형’인 것이다. 각 사이트에서 설정한 금칙어를 넘어서기 위해 누리꾼들이 과생 변이형을 만들어 쓰면서 지금과 같이 몇 만 개의 금칙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국 인터넷 공간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적용된, 당시 민간 조직이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금칙어가 700여 개에 지나지 않았고, 2005년 무렵의 네이버 금칙어로 알려진 자료도 약 2,000개 정도였음에 비해 현재는 그 수가 약 7만 개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⁴⁾ 금칙어 사용을 막으려는 사이

3) 손현익(2016:64-65)에서는 ‘금기어’를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 대상이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도록 하는 표현 기제”로, ‘완곡어법’을 “금기의 심리를 예들려 말하는 우회적(circumlocution) 표현 기제”로 보고, 금기 대상에는 ‘성, 죽음, 배설, 신체 기능, 종교적인 문제, 정치, 경외의 대상, 공포물 등’이 있다고 기술했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네이버 선정 금칙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복(2008)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트 운영자와 그런 방어벽을 어떻게든 뚫어서 자신의 뜻을 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누리꾼들 사이의 대결이 얼마나 치열한지 잘 보여 준다.

3. 인터넷 욕설의 유형과 사용 실태

한국 누리꾼들이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사용하는 ‘금칙어 욕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⁵⁾ 그것은 내용 면에서 어떠한 유형과 분포를 보이는지 욕설 사용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대문형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댓글 자료를 수집했다. 분석 대상 기사는 2018년 6월 11일에서 7월 2일까지 <네이버 뉴스>에 실린 주요 기사 가운데 댓글이 많이 달린 24편이다. 네이버에서 내용 영역별로 기사를 분류한 체계를 참조하고, 기사에 달린 댓글의 양을 고려하여 기사 영역을 ‘정치, 경제, 사회/생활/문화, 세계/IT/과학’의 네 범주로 크게 나누어 욕설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자 했다. <표 1>과 같이 분석 대상 기사를 선정했으며, 네이버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 댓글 및 욕설이 쓰인 댓글 자료를 확보했다.⁶⁾ 다만,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어떤 성별과 나이의 누리꾼이 어떤 욕설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화자 식별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는 네이버사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구분	기사 제목	전체 댓글 수	욕설 댓글 수
정치	1. 홍준표, 당 대표직 사퇴...“모두가 제 잘못”(상	11,427	72

5)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인터넷 금칙어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욕설이며, 구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선정한 금칙어 목록에 들어 있는 욕설 표현들이다. 이를 ‘금칙어 욕설’ 또는 넓게 보아 ‘인터넷 욕설’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6) 뉴스 댓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준 네이버사의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보), 뉴시스, 2018-06-14		
	2.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종합), 연합뉴스, 2018-06-15	1,146	16
	3. 文대통령 “남북러 3각협력, 철도연결이 추진 가능성 가장 커”(종합), 연합뉴스, 2018-06-22	3,333	41
	4. 복지부동 겨눈 文, 참을 만큼 참았다, 서울신문, 2018-07-02	3,851	49
	5. 文대통령 ‘업무 복귀’...수석·보좌관회의 주재, 파이낸셜뉴스, 2018-07-02	2,097	25
	6. 김문수, 文 감기에 “朴 세월호 7시간은 분 단위로 따지더니”, 국민일보, 2018-07-02	8,517	210
경제	1. 금감원 “美 금리인상했다고 대출금리 과다하게 높이면 엄정 대처”, 뉴시스, 2018-06-14	975	6
	2. 김동연 “고용동향 충격적...경제팀 모두의 책임”, 아시아경제, 2018-06-15	7,457	71
	3. 쓸 돈이 없는 삶... 숙박·학원·빵집부터 쓰러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8-06-22	8,380	67
	4. “삼성전자에 준 기술 통째 달라” 中, 177조 들고 반도체 사냥, 중앙일보, 2018-07-02	3,310	48
	5. ‘핑크텍스’를 아십니까... “여성 커트 18000원 남성 12000원, 머리길이 때문?”, 국민일보, 2018-07-01	5,122	70
	6. ‘저녁이 있는 삶’ 여는 실험...‘주 52시간제’ 첫 출근날, JTBC, 2018-07-02	3,224	26
사회/ 생활/ 문화	1. [와글와글] ‘이재명 인터뷰 논란’ 원래 이런 분?...네티즌 “보험사 전화 끊는 느낌”, 한국경제, 2018-06-14	901	4
	2. 부산서 덤프트럭이 빌라 들이받아...운전자 부상·4가구 파손, 뉴시스, 2018-06-15	884	8
	3. 정류장 쓰레기통 딜레마 ... 없으면 쌓이고 있으면 악취 민원, 중앙일보, 2018-06-22	2,759	18
	4. 예멘 난민 품었다가 ‘부대끼는’ 제주, 한겨레, 2018-07-02	6,377	57
	5. 하늘·땅·벧길 끊겼다...서해·남해안 사흘간 최고 300mm, 연합뉴스, 2018-07-02	874	15
	6. ‘니가 해라 설거지’ 시비 끝에 흥기 꺼낸 제주의 예멘 난민들...쌍방폭행, 세계일보, 2018-07-02	10,617	98

세 계 /IT/ 과학	1. 백악관 ‘북미회담 기념주화’에 文대통령 이름도 들어가, 머니투데이, 2018-06-14	716	3
	2. “SKT 고객, 더 싼 요금제로 전환... 회사 이익 줄더라도 신뢰 얻을 것”, 한국경제, 2018-06-21	507	2
	3. 中 10세대 투자 붐물 LCD 6달새 패널가격 20% 급락...내년이 더 암울, 조선비즈, 2018-06-22	215	3
	4. 색안경 시선 국제커플, 구경거리 아니거든요, 동아일보, 2018-07-02	815	7
	5. 전·후면 듀얼 디스플레이, 또 중국이 한 발 앞서나, 아시아경제, 2018-07-02	161	0
	6. 신음소리만 흘러나오는 음란 ‘흑방’...경찰 수사 받는다, 중앙일보, 2018-07-02	405	4

<표 1> 분석 기사 목록

위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의 댓글 84,070개 가운데 금칙어로 설정된 욕설이 쓰인 댓글은 모두 920개로 나타났다. 전체 댓글 대비 욕설 댓글은 1.09%로서 높은 편은 아니다.⁷⁾ 그런데 기사 영역에 따른 욕설 댓글의 비율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정치 기사의 경우 욕설 댓글 비율이 1.36%(30,371개의 댓글 중 413개의 욕설 댓글)로 가장 높았다. 정치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가장 높고 반응 또한 가장 격렬함을 보여 준다. 경제 기사는 1.01%(28,468/288)로 욕설 댓글 비율이 전체의 평균에 가까웠고, 사회/생활/문화 기사는 0.89%(22,412/200)로 평균보다 낮았다. 세계/IT/과학 기사는 0.67%(2,819/19)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기사 영역에 따른 욕설 댓글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준 것이다. 정치 기사에는 세계/IT/과학 기사에 비해 욕설 댓글이 2배 더 많이 달렸음이 확인된다.

<표 2>의 전체 댓글 사용자 분포와 비교할 때, <표 3>의 금칙어로 설정된 욕설이 쓰인 댓글의 사용자 면에서 성별과 세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7) 전체 댓글 가운데 네이버에서 약 7만 개의 금칙어 목록을 적용하여 욕설을 ‘○○○’ 형식으로 바꾼 댓글이 920개인데, 댓글 가운데는 누리꾼들이 금칙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변형하여 입력함으로써 금칙어 적용을 벗어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욕설 댓글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임을 밝힌다.

구분	성별		세대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치	23,012	7,359	348	3,074	7,643	10,663	8,643
경제	22,214	6,254	425	5,060	8,563	8,605	5,815
사회/생활/ 문화	12,544	9,868	430	3,565	8,460	6,748	3,209
세계/IT/ 과학	2,197	622	58	607	969	794	391
합(개)	59,967	24,103	1,261	12,306	25,635	26,810	18,058
비율(%)	71.3	28.7	1.5	14.6	30.5	31.9	21.5

<표 2> 기사 영역별 전체 댓글의 사용자 분포

위의 <표 2>에서 전체 댓글을 쓴 누리꾼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71.3%, 여성이 28.7%를 차지하여 남성 누리꾼들이 여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 비율 차이는 2.48배에 이른다. 남성들이 전반적으로 기사에 대한 의견 댓글을 활발하게 달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표출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대 면에서는 40대 누리꾼들의 댓글 수가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30.5%를 차지하여 두 세대 댓글의 합이 62.4%에 이른다. 50대 이상 누리꾼들은 21.5%였고, 20대가 그 다음으로 14.6%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의 댓글 수가 비슷한 분포를 보여 준다. 인터넷 이용이 많은 20대의 경우 기사에 댓글을 붙이는 경우가 예상보다 적은 편이다.

구분	성별		세대별				
	남성	여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정치	343	70	4	42	92	114	161
경제	242	46	8	63	79	66	72
사회/생활/문화	140	60	9	38	76	52	25
세계/IT/과학	15	4	1	4	7	4	3
합(개)	740	180	22	147	254	236	261
비율(%)	80.4	19.6	2.4	16.0	27.6	25.6	28.4

<표 3> 기사 영역별 욕설 댓글의 사용자 분포

전체 댓글은 남성이 71.3%였지만 <표 3>에서 욕설 댓글은 80.4%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9.1% 포인트나 된다. 남성과 여성의 욕설 댓글 차이는 4.1배로서 남성들의 욕설 사용이 절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세대 면에서는 50대 이상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2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7.6%, 40대가 25.6%를 차지했다. 10대 및 20대 누리꾼들이 쓴 욕설 댓글은 합쳐서 18.4%인데, 댓글 비율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욕설 댓글 비율이 2.3% 높아졌다. 더 눈에 띄는 점은, 50대 이상 누리꾼들의 댓글 비중이 21.5%임에 비해 욕설 댓글 비중은 28.4%로서 그 차이가 6.9%에 이르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뉴스 댓글에서 젊은 누리꾼들보다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오히려 더 적극적임을 확인하게 된다.⁸⁾

그런데 금칙어 욕설이 포함된 920개의 댓글 가운데서 한 댓글에 서로 다른 형식의 욕설이 둘 이상 쓰인 경우를 따로 계산할 때 조사 대상 기사 댓글에 쓰인 욕설은 모두 973개다.⁹⁾ 이러한 욕설들은 의미 영역을 고려하여 몇 가지

8)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맺음말 부분에서 해석해 보기로 한다.

9) 한 댓글에서 같은 형식이 둘 이상 쓰인 경우는 하나의 욕설이 쓰인 것으로 처리했다.

‘쫓’이나 ‘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ㄴ’ 계통으로 교체된다고 하면서 “최소한의 음상 변화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면서 금기어 사용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했다.¹¹⁾ 인터넷에서는 이런 표현 효과를 노리는 한편 운영자가 설정한 금칙어 입력 제한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형 표기를 하고 있다.

(2라)의 다양한 표현들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설정한 금칙어를 넘어서기 위해 누리꾼들이 금칙어 대응 전략에서 만들어 쓰는 변이형이다. ‘18 놈’, ‘c발 너마’는 숫자 및 로마자를 이용하여 변형한 것이고, ‘띠발겓’, ‘빠아구리’, ‘죤만아’, ‘쓰벌겓’, ‘시입할넌’ 등은 자음이나 모음을 바꾸어 적은 것이다. ‘ㅅㅂㄴㅇ’, ‘ㅅㅂㄴㄹㅁ’는 첫소리 **자음자로** 적었고, ‘ㅅ.ㅣ 발’, ‘씨/발’, ‘씨~~발 놈’, ‘썹 새’는 글자 사이에 기호나 빈칸을 넣어 적음으로써 본래의 금칙어를 피하려 하는 형식이다. ‘썹흠썹끼’처럼 본래의 표현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글자를 변형한 경우도 보인다. (2라)의 다양한 금칙어 변이형들을 보면 사이트 운영자와 누리꾼들이 금칙어라는 방패와 금칙어 변이형이라는 창을 통해 얼마나 열심히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¹²⁾

(2마~마-2)를 보면, 이 유형의 욕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다. 기사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강하게 비판 또는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에서 욕설이 쓰였고, 댓글 문장의 종결어미 전체가 모두 해라체나 해체 등 넓은 의미의 ‘반말’로 나타난다.¹³⁾

11)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는 “운전 잭같이 하는 놈들 보면”, “좃같이 군대에서 고참이라고 존나 빠기구,또 좃같이 후임병생활 하던 녀들이 사회 나오니까”, “이런 잭같은 클랜징폼”처럼 ‘쫓’이 ‘좃’ 또는 ‘갓’으로 표기되는 경우를 흔히 찾을 수 있다.

12) 누리꾼들이 쓰는 다양한 변이형들은 금칙어 대응 전략의 결과이면서 일부는 금기어를 직설적으로 쓰는 심리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전병용(2012:110)은 이와 관련해 “아무리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기 위한 욕설이라도 가장 대표적인 금기어인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통신 언어 이전부터 금기어를 직접 쓰는 부담을 덜기 위해 형태를 변화시켜 쓴 것으로 해석했다. 또 박재연(2017:184-185)는 ‘넌 씨발 눈치도 없냐’의 줄임말 욕설 ‘넌씨눈’은 “언어 형식의 일부를 감춤으로써 그 폭력성을 더욱 쉽게 은폐한다”고 해석했는데, 금칙어의 변이형 사용에는 이러한 동기가 함께 작용한다.

- 라-1. 미친놈이네ㅋㅋ 이런 상퐁이들이 모여서 보수하는거구나ㅋㅋㅋ
- 라-2. 개한민국 미친민국 망한민국 미개민국 병신민국 개또라이민국

누리꾼들이 쓰는 금칙어 욕설에는 장애나 질병과 관련된 표현이 특히 많이 보인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장애나 질병에 대한 공포,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주 강한 차별, 비하 의식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형식은 (3가)의 ‘병신’ 또는 그 결합형이다. 정신 장애를 가리키는 ‘미친놈’ 계열의 욕설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생각이 짧다/없다’는 뜻으로 만들어 낸 새말 ‘무뇌충(無腦蟲)’도 흔히 쓰인다. 질병과 관련하여 (3나)의 ‘지랄’ 또는 그 결합형이 많이 쓰이고, ‘염병’의 변이형 ‘염뺑’도 1회 쓰였다. (3다)의 변이형을 보면 ‘미친X’와 ‘병신’의 표기를 바꾼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죽음 욕설의 형식과 쓰임

- 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 찢어죽일
- 나. 똤져라, 나가 똤져라, 디졌으면 좋겠다, 나가죽어, 자결해, 자살해라, 한남 재기해, 활복해, 애미디진
- 다. 나가 디져, 나가 디져라, 나가똤져, 다 똤졌으면, 똤져라, 두기져라, 똤져버(려라), 똤져야, 디져라, 디져, 애미똤졌, 애미똤진, 찢겨죽여, 찢어죽여
- 라. 20 30 40 급식충수준 개돼지 들쥐들은 다 똤졌으면 해.특히 한년충들은 ㅋㅋ
- 라-1. 입만 죄송하다하지말고 활복해라.죄송하다고 끝낼 문제냐 ㅎㅎ
ㅎㅎㅎㅎㅎ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라-2. 나가죽어 갱새야. 너때문에 4~5개는 건질판이 2개로 줄었다. 진짜... 품격없고, 나뉠때 안나뉠때 모르는 너같은 정치인은 처음 봤다. 다시는 정치판에 얼씬도 하지마라. 안철수도 같이 데리고 가~

아직 모르잖아..

아직도 유교 문화 전통이 강한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이나 품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욕설이 많이 쓰이고 있다. (5가)의 ‘쌍놈’, ‘쌍년’ 등 신분제 체제의 하위 계급을 비하하여 가리키던 말이 지금도 욕설로 쓰이고, ‘갈보년’, ‘갈레놈’, ‘창녀’ 등 성도덕이 문란한 사람이나 성매매 종사자를 가리키는 말도 심한 욕설로 쓰인다.¹⁴⁾ 또 단순히 ‘새끼’라는 말 자체로도 인격 이하 욕설로 쓰인다. ‘쓰레기’, ‘쓰레기놈’과 같이 대상자를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로 표현하는 뜻의 욕설도 있고, 사람을 몇 차원 낮다고 보는 ‘하찮은’ 동물에 비유하는 욕설 ‘버러지’도 있다.¹⁵⁾ ‘후레자식’ 등은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서 몹시 버릇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욕설이다. 이 유형의 욕설 가운데는 (5나)와 같이 동물 ‘개’가 들어 간 ‘개새끼’, ‘개자식’ 등의 표현이 특히 많이 쓰인다. (5다)의 신분 및 품성 관련 욕설 변이형을 보면 ‘개’가 들어 간 말이 가장 많다.

(6) 기타 욕설의 형식과 쓰임

가. 빨갱이놈, 빨갱이새끼; 남조선

나. 좃선족, 좃선족

다. 호구런

다-1. ㅋㅋㅋㅋ새끼 나라가 넘어갔댄다ㅋㅋㅋㅋ빨갱이새끼 마음
같아서서 잡아다가 확 패고싶네

다-2. 대통령 잘 뽑은 미국은 완전고용 일본도 완전고용~~남조선은
실업자 득실~~반도체 조선 자동차도 중국에 다 뺏기고 현대차도
외국에 공장 20개 늘릴때 한국엔0~~삼성도 베트남 직원 올해

14) ‘갈보년’, ‘창녀’ 등은 앞의 성기 및 성행위 욕설에 넣을 수도 있지만 성행위 자체를 주목하여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비난하는 욕설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 넣었다.

15) 김종수(2000:262)는 독일어에서도 동물 이름을 이용한 욕설이 다수 사전에 실린 것으로 소개했다.

15000명~/늘려 15만~ㅋ ㅋ 문재인 조오오웃 빠는 것들 할말
있냐????

다.3. 확성샵이나 검색하고 기사 써라 기자야. 아랫쪽 남자 털 많다고
비용 더 받는거 모르나. 호구련아.

기타 유형의 욕설로는 (6가)의 이념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빨갱이’가 들어간 표현이 금칙어로 지정되었고, ‘남조선’이라는 말은 북한에서 남한을 가리키는 ‘남조선’의 ‘조’를 ‘쫓’으로 바꾸어 쓴 것으로 비속어 ‘쫓’을 연상하게 하는 점 때문에 금칙어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6나)의 ‘쫓선족’, ‘쫓선족’이 금칙어가 된 것이다. 남한 및 중국 동포를 비하하기 위해 누리꾼들이 이러한 변이형을 쓴다고 하겠다. (6다)의 ‘호구련’은 ‘호구+년’의 변이형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점에서 금칙어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유형의 금칙어 욕설들이 어떤 비율로 쓰였는지를 수치를 통해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각 유형별 쓰임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성기/ 성행위	장애/ 질병	죽음	신분/ 품성	기타	합
쓰임 빈도	216	472	50	224	11	973회
비율	22.2	48.5	5.1	23.0	1.1	100%
대표형	씨발놈, 쌩새끼	병신, 미친놈	돼지다	개새끼, 버러지	빨갱이	

<표 4> 누리꾼들이 쓴 욕설의 유형별 분포

전체 욕설에서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가장 많이 쓰였고, 전체의 48.5%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서 신분 및 품성 관련 욕설이 23%, 성기 및 성행위 관련 욕설이 22.2%로 비슷하게 쓰였다. 죽음 관련 욕설은 5.1%, 기타 욕설이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누리꾼들이 기사 댓글에서 많이

쓰는 대표적 욕설 유형은 ‘장애/질병’, ‘신분/품성’, ‘성기/성행위’의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욕설 형식들의 쓰임 빈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들이 가장 많이 쓰였는지를 <표 5>로 정리해 본다.

순위	욕설 형식	빈도(회)	비율(%)
1	병신(**)	267	27.4
2	미친**	148	15.2
3	씹**	148	15.2
4	개**	109	11.2
5	버러지	38	3.9
6	좃(**)	33	3.4
7	쓰레기(**)	31	3.2
8	돼지다	25	2.6
9	(개)지랄(**)	19	2.0
10	(개)또라이(**)	13	1.3

<표 5> 대표적 욕설 형식의 쓰임 빈도

<표 5>를 보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쓴 개별 욕설 형식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병신’과 그 결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정신 장애와 관련된 ‘미친’과 여성 성기 및 성행위를 가리키는 ‘씹’이 결합된 욕설이 많이 쓰였으며, 각각 15.2%를 차지했다. 사람의 품성을 동물에 빗댄 욕설인 ‘개’ 결합형도 11.2%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여 주었다. 기타 상위 빈도 욕설로는 ‘좃’ 및 그 결합형, ‘쓰레기’와 그 결합형 등이 있었고, 죽음과 관련된 욕설 ‘돼지다’ 형식의 쓰임도 상당히 많았다. 전체 상위 빈도 욕설 10개 가운데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병신(**), 미친**, (개)지랄

(**), (개)또라이(**)'의 4개로 가장 많은 점도 눈에 띈다.¹⁶⁾

구분	성기/ 성행위	장애/ 질병	죽음	신분/ 품성	기타	합
정치	92(21.0)	232(52.8)	22(5.0)	86(19.6)	7(1.6)	439(100%)
경제	66(21.9)	156(51.7)	18(6.0)	61(20.2)	1(0.3)	302(100%)
사회/ 생활/문화	54(25.6)	76(36.0)	8(3.8)	70(33.2)	3(1.4)	211(100%)
세계/IT /과학	4(19.0)	8(38.1)	2(9.5)	7(33.3)	0(0.0)	21(100%)
합	216(22.2)	472(48.5)	50(5.1)	224(23.0)	11(1.1)	973(100%)

<표 6> 기사 내용 유형별 욕설 쓰임

분석 대상 기사의 내용 유형별로 댓글에서 어떤 욕설이 많이 쓰였는지를 정리하면 위의 <표 6>과 같다. 모든 유형의 기사에서 장애/질병 관련 욕설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특히 정치, 경제 기사에는 절반 이상의 욕설이 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경제 기사에서는 성기/성행위 욕설이 두 번째로 많이 쓰였는데 신분/품성 욕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달리 사회/생활/문화, 세계/IT/과학 기사에서는 장애/질병 욕설에 이어 신분/품성 욕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였다. 성기/성행위 욕설보다 최대 14.3% 포인트 더 많이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누리꾼들은 정치, 경제 영역의 경성(硬性)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는 장애/질병, 성기/성행위 등에 관련된 강도가 심한 욕설을 많이 쓰고 사회, 문화, 세계, 과학 등의 연성(軟性) 기사에서는 장애/질병 욕설도 많이 썼지만 신분/품성에 관련된 강도가 약한 욕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쓴 사실을 알 수 있

16) 이선영(2015:76)에서 기존 욕설 관련 연구에 나오는 고빈도 비속어 54개를 정리한 표를 보면 ‘병신’, ‘씨발’, ‘존나(좆나, 좆라)’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의 10개 욕설 가운데 ‘버러지’를 제외한 나머지 9개가 모두 기존 연구의 고빈도 비속어에 들어 있다.

다. 평균적으로 볼 때, 정치나 경제 기사에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하고 민감하며 관심도가 높은 문제가 보도되고,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 기업인 등 유명인사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언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댓글 의견이 많이 달리고, 기사 내용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공격적 언어 사용이 많다. 누리꾼들은 비판과 공격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비속성이 심한 욕설을 많이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사회, 문화, 과학 등의 기사에는 정치, 경제 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에서 덜 중요하거나 관심도가 낮은 문제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댓글 및 욕설 댓글 수가 극히 적고, 욕설 사용에서도 비속성이 약한 형식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¹⁷⁾ <표 6>에서 정리한, 누리꾼들의 이러한 기사 유형별 욕설 사용에 대해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값 29.675, 자유도 12, 유의확률(양측검정) .003으로 기사 유형에 따른 욕설 사용 차이가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

앞 장에서 누리꾼들이 뉴스 댓글에서 사용한 욕설의 쓰임을 <표 4>로 분석한 결과,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48.5%로서 전체 욕설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병신', '미친놈'으로 대표되는 이 유형의 욕설이 인터넷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이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강한 차별과 비하 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¹⁸⁾ 이와 함께 누리꾼들이 장애나 질병에 대한 강한 공포와 수치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장애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멀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로서의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사회적 억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일상적 상

17) 문화, 사회 기사라 해도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관련된 기사의 경우 때때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한다.

18) '병신'이라는 표현은 장애 관련 표현들 가운데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성이 가장 강한 말로 인식되고 있다(임영철·이길용 2008:41).

황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가 있더라도 장애와 관련된 표현의 사용을 스스로 금기시하고 자제하게 되지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관련 욕설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금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의 사전을 보면 장애인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수많은 속담이 들어있는데, 언중의 오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속담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표현이 많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특히 강했음을 잘 보여 준다(이정복 2014:16). 장애인을 가리키는 ‘곱사등이’, ‘난쟁이’, ‘얹은뱅이’, ‘귀머거리’ 등에 잘 붙는 ‘-이’, ‘-쟁이’, ‘-뱅이’, ‘-어리’ 등의 접미사는 본래 사람보다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에 더 잘 붙고, 사람에게 붙더라도 부정적인 뜻을 갖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장애인 지시 표현은 구성 자체에서 장애인을 하찮은 사물처럼 생각하는 비장애인의 차별 의식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하겠다(이정복 2014:251). 이렇듯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할수록 관련 표현은 금기어로 인식되고, 강한 욕설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금기어가 효과적인 수단처럼 잘 쓰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강한 차별과 비하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문화적으로 사람의 외모에서 반듯하고 완전함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곧 공직 등을 위해 사람을 고를 때 쓰던 네 가지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는 가치관이 중요시되면서 장애인은 반듯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대표적 존재로 치부되어 기본적으로 공직에서 배제되어 왔다. ‘신체, 말하기 능력, 문장력, 판단력’이라는 기준 가운데서도 신체의 조화와 완벽함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강력한 외모 중심 문화에서 장애인은 설 자리가 없었고,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다. 한국인들이 가진 신언서판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외모지상주의라는 현재의 한국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직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에 이어 ‘개새끼’, ‘버러지’로 대표되는 ‘신분 및 품

성 비하 욕설'도 23%로 많이 쓰였는데, 그 바탕에는 한국의 유교주의 신분 사회 전통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개', '버러지'와 같은 동물은 도덕이나 인륜을 전혀 모르는 하층 생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러한 동물에 비유한다는 것은 최고로 강한 욕설이 되어 왔다. 한국어 욕설 가운데 '개만도 못한 인간'이나 '짐승 같은 놈'은 사람과는 한 차원 낮은 존재로서 동물을 얼마나 무시했으며, 사람을 그러한 동물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모욕이 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유형의 욕설에는 동물 비유 표현 외에도 '쌍놈', '쌍년'이 많이 쓰이는데, 사람 사이의 예의 질서를 중시하고 인륜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던 유교 전통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점잖은 양반이 되고 싶어했고, 높은 도덕성을 갖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체계의 아래에 속했던 '상놈/쌍놈'과 '상년/쌍년'은 예의와 도덕을 모르는 부류로서 양반들과는 별종의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표현들은 사회적 금기어로서 직접 대면하여 쓰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모욕으로 인식되었다. 금기어는 언어 사회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지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허재영 2001:199), 시대가 바뀌어 양반과 상민의 구별이 없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과거 신분제 사회의 금기어와 욕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과 두루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인터넷 공간, 그 가운데서도 기사 정보를 바탕으로 누리꾼들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사 댓글에서 신분과 품성을 비하하는 심한 욕설이 많이 쓰이는 점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개새끼', '개자식', '개놈'처럼 동물 가운데서도 특히 '개' 결합형 욕설이 많이 쓰인 것은 한국인들의 개에 대한 이중적이면서 강한 부정적 태도 때문이다. 개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고 충실한 동물인 반면 성질과 행실이 나쁜 존재의 대명사로 통한다. 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개는 길러 준 주인을 물어 숨지게 하는 배은망덕의 동물인 동시에 길거리에서나 근친 간에

성행위를 하는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동물로 인식된다. 개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최고의 금기로 작용하는 ‘근친상간’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는 점에서, ‘개새끼’, ‘개만도 못한 놈’ 등의 욕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고 도덕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공격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욕설은 ‘성기/성행위’ 욕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쓰인다.

‘신분/품성’ 욕설과 비슷한 빈도로 쓰인 ‘성기/성행위’ 욕설(22.2%)의 대표 형식은 ‘씨발놈’, ‘씹새끼’ 등이다. ‘씨발놈’은 정확히 표현하면 근원적으로 ‘네 어미와 씹할 놈’의 뜻이고, 이를 줄여 쓰면 ‘니미 씹할 놈’이 된다.¹⁹⁾ ‘씹새끼’ 또한 ‘네 어미와 씹할 새끼’, ‘니미 씹할 새끼’의 줄임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상어 사용에서는 ‘니미씹할(놈/새끼)’ 또는 ‘니미씹’이라는 강도 높은 욕설이 흔히 쓰인다. 누리꾼이 쓴 욕설에 ‘니그미 시벌것’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욕설 ‘느그 엄마’, ‘느그마’도 이러한 근친상간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²⁰⁾ 성기나 성행위 욕설이 강한 공격성을 띠게 된 것은 바로 어느 문화에서든 최고의 금기로 인식되는 근친상간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교 전통의 한국 사회에서 언제나 의식 아래에 두어야 했던 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모욕, 공격이지만 한국어 누리꾼들은 최고 수준의 금기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공격력을 높이려 한다. 이러한 근친상간과 관련된 욕설은 중국어나 인도-유럽어 등 다른 언어에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욕설’(오새내 2002:146)이지만 한국어에서는 해당 욕설 수가 많고 사용도 쉽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19) 비슷한 뜻의 욕설로 ‘제 어미 씹할 놈’, ‘제미 씹할 놈’을 쓰고, 간단히 줄여 ‘제미’를 쓰기도 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제미’를 “남을 심하게 경멸하거나 몹시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로 풀이했다. ‘제기’와 ‘제기랄’도 본래 뜻이 근친상간과 관련된 욕설이다. 오새내(2002:146)에서는 ‘네밀불을, 네어미, 느그멈할, 니어미 씹이다, 지기미, 지미랄’ 등 49개의 근친상간 관련 한국어 금기어를 제시하고 있다.

20) ‘느그마’(느그+엄마), ‘느개비’(느그+애비), ‘엄창’(엄마+창녀) 등 부모를 모욕하는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쓰이는데 그것을 가리켜 ‘페드립’(페툰+애드립)이라고 부른다. ‘틀딱충’(틀니+딱딱거리는+충), ‘할매미’(할머니+매미)와 같은 표현을 통해 조부모를 모욕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 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리꾼들의 기사 댓글 금칙어 욕설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장애에 대한 강력한 금기 문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모욕 표현을 욕설로 많이 쓰는 것은 한국인들이 장애에 대한 심한 공포와 수치심,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금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인륜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하층 계급이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금기 의식 또한 뚜렷한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성행위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 특히 근친상간에 대한 강한 금기 문화의 영향으로 성기나 성행위 관련 욕설이 높은 공격성을 띠며 쓰이고 있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뉴스 댓글, 구체적으로 네이버 뉴스의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쓴 금칙어 욕설의 쓰임을 분석하고, 현재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했다. 2장에서 인터넷 욕설과 금기어, 금칙어의 관련성을 기술했고, 3장에서 인터넷 욕설의 유형과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4장에서는 누리꾼들이 사용한 욕설 금칙어의 쓰임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해석 및 정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누리꾼들은 성기/성행위, 장애/질병, 죽음, 신분/품성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욕설을 활발히 쓰고 있으며, 그 가운데 장애 및 질병 관련 욕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욕설을 많이 썼고, 세대별로는 50대 이상의 나이 많은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이 가장 많았다. 개별 욕설 형식들의 쓰임을 살펴본 결과, ‘병신’, ‘미친’, ‘씹’, ‘개’, ‘버러지’, ‘ 좆’, ‘쓰레기’, ‘돼지다’의 단독 또는 그 결합형 욕설의 쓰임이 많았다. 누리꾼들의 욕설 사용은 정치, 경제, 사회/생활/문화, 세계/IT/과학의 기사 영역에 따라 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 경제 기사의 댓글에는 장애/질병 욕설이 절반 이상 쓰였고, 이어서 성기/성행위 욕설이 많이 쓰였지만 사회/생활/문화, 세계/IT/과학 기사의 댓글에는 장애/질병 욕설과 함께 신분 및 품성 비하 욕설의 쓰임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누리꾼들의 욕설 금칙어 사용을 통해 한국 사회 금기 문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과거는 물론 지금도 장애 금기, 하층 계급 및 반인륜적 행위 금기, 성행위 및 근친상간 금기의 언어문화가 특히 강하다고 보았다.

한국의 대표적 대문형 사이트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누리꾼들이 욕설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인터넷 금칙어라는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금기어 문화의 특징을 살펴본 이 연구는 인터넷 언어문화의 구체적인 한 면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남성들의 욕설 사용이 여성들보다 많은 것은 여러 사회언어학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만 세대 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집단에 속하는 50대 이상의 누리꾼들이 욕설 사용을 제일 활발히 하고 있는 사실은 이 연구를 통하여 처음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사 댓글 수로 볼 때, 3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누리꾼들의 사회적 관심도와 참여도가 두루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50대 이상의 비속어 사용이 특히 많은 점은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생애 단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50대 이상 누리꾼들은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고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곧 이들 누리꾼들은 사회 활동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30대나 40대에 비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욕설 사용을 자유롭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²¹⁾ 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보수적 성향이 강한 생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혁적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

21) 이익섭(1994:143)은 사람들이 중년기가 지나면 비표준형 사용을 다시 많이 한다고 했다. 정년이 되어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사회적 압력에서도 그만큼 벗어나게 되면 표준형의 사용이 줄어들고 대신 비표준형 사용이 늘어난다고 본 것이다. 50대 이상 누리꾼들의 높은 욕설 사용률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나 북한과의 화해, 교류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점도 50대 이상 누리꾼들의 적극적 욕설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부 및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사회적 탈억제 상태가 결합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나이 많은 누리꾼들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욕설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자료 분석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누리꾼들의 성별이나 세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주로 썼는지, 욕설 사용의 성별, 세대별 차이가 어떤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 욕설 댓글의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네이버사의 판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욕설의 유형에 따른 성별 및 세대별 사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금기 문화와 관련된 욕설이 어떤 사회언어학적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밝히고, 나아가 한국 금기 문화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김열규(1997), 『욕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 사계절.
- 김종수(2000), 「금기와 사전에 나타난 금기어」, 『독어교육』 20, 251-271,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박영준(2004), 「한국어 금기어 연구—유형과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15, 79-105, 우리말학회.
- 박재연(2017), 「한국어 줄임말 비어의 어휘론과 화용론」, 『한국어 의미학』 56, 161-188, 한국어의미학회.
- 손현익(2016), 「소수자에 대한 금기어와 그 완곡어법에 관한 연구—인종 소수자와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1-1, 63-86,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 안태형(2015), 「네이버(Naver)기사에 딸린 악성 댓글의 실태」, 『우리말연구』 40, 153-174, 우리말학회.
- 이갑남(2017), 「중한 금기어와 완곡 표현 대조 연구—죽음과 질병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41, 125-153, 동아인문학회.
- 이선영(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64, 59-80, 중앙어문학회.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정복(2008), 「인터넷 금칙어와 통신 화자들의 대응 전략」, 『사회언어학』 16-2, 273-300,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 이정복·양명희·박호관(2016), 『인터넷 통신 언어와 청소년 언어문화』, 한국문화사.
- 임영철·이길용(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 태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장경희(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401-4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전병용(2012), 「인터넷 댓글에 나타난 '성기' 관련 욕설의 변이형 고찰」, 『어문연구』 74, 105-130, 어문연구학회.
- 전병철(2007), 「댓글에 나타난 욕설의 형태 연구」, 『언어학 연구』 11, 189-205, 한국중원언어학회.

90 우리말연구 55집 (2018. 10.)

조향숙(2013), 「금기어와 한국인의 감정」, 『인간·환경·미래』 10, 97-118, 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허재영(2001), 「금기어의 구조 및 발생 요인」, 『사회언어학』 9-1, 193-217, 한국사회
언어학회.

이정복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053-850-6017

leejb@daegu.ac.kr

접수 일자: 2018년 9월 15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8년 10월 11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10월 21일

<Abstract>

The Use of Swear Words in News Comment and the Taboo Culture of Korean Society

Lee Jeong-Bok(Daegu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se of swear words used by netizens in comment of the Naver new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aboo culture in present Korean society. In Chapter 2, we describe the relevance of swear words, taboos, and prohibited words of internet. In Chapter 3, the types and distribution of swear words are analyzed. In Chapter 4, we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boo culture of Korean society based on the usages of swear words. Through this process, we could find that Korean netizens are using various types of swear words such as sexual organ and sexual activity, disability and disease, death, status and personality, etc. and among them, disability and disease swear words account for half of the whole. In terms of gender, males used the swear words four times more than females. In terms of generations, older people in their fifties or older used the most swear words. Through the use of these swear words by netizens, three characteristics of taboo culture in Korean society appeared: taboo of disability, taboo of lower-class and anti-human behavior, and taboo of sexual and incest.

* Key words : Naver, news comment, swear words, taboo words, prohibited words of internet